



광주 지·산·학·연 거버넌스 협의체 공식 출범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6일 '광주 지·산·학·연 거버넌스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

협의체는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조종래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영집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광주 11대 대표산업 산학연합회 회장, 지역 내 8개 대학 산학협력단장, 연구 및 지원기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장구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출범식은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산학연합회 회장단, 지역대학 산학협력단장, 지역혁신기관 기관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운영계획 보고, 광주시 대표산업 육성전략 보고,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및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 상황 보고, 광주 지·산·학·연 협의체 활성화 방안 논의,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사업 보고 등을 진행했다. **곽지혜 기자**



소진공 '전통시장 활성화·안전관리' 협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26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전기·가스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업무협약은 소진공,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각각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안전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을 포함한 각 기관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향후 중점식 카드형 온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동반성장 협력△주거적인 전기·가스 안전점검 활동으로 재해예방에 주력한다.

또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설계검토와 시공업체 선정 컨설팅 등 △기술지원△상인회 및 소진공 직원 대상 전기·가스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 각 기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박소영 기자**



산단공 광주본부-KT 컨소시엄 협약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27일 ㈜KT 등 8개 기관과 '광주첨단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운영사업은 산업단지 저탄소화와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통합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자급자족 실증단지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KT와 엔에이치네트웍스(주), (주)오토닉스, (주)엔탑엔지니어링, 브이산업(주), 한국광기술원, (재)기업재생에너지재단,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등 8개 기관을 구성된 컨소시엄은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광주첨단산단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사업 전담기관인 산단공과 수행기관인 KT 컨소시엄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준수 및 사업관리 강화, 산단 디지털·저탄소화 확대를 위한 연계사업 발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곽지혜 기자**



동구, 민·관 협력 '통합돌봄 사례 회의'

광주 동구는 지난 21~23일 맞춤형 주민 체감형 복지 실현을 위한 '민·관이 함께하는 권역별 통합돌봄 사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사례 회의는 통합돌봄과를 중심으로 보건소·빛고를종합사회복지관·동구노인복지관·동구장애인복지관·동구가족센터를 비롯한 관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돌봄 실무자를 대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 매달 진행해 오고 있다.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주민 누구나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기존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의 경우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초과하는 주민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날 실무자들은 각 복지관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와 복지자원을 공유하고, 사례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민섭 기자



한국에너지공대-테크로스 기술개발 협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윤의준)와 (주)테크로스 (대표 이사 박석원)가 지난 26일 한국에너지공대에서 수전해 관련 기술이전 및 그린수소생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27일 한국에너지공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그린수소생산 수전해 소재, 부품, 시스템 개발, △그린수소생산 수전해 신뢰성 평가 개발, △공동 연구개발 주체의 발굴과 산학 및 국가 연구과제 공동 추진, △그린수소생산 수전해 인력 양성 및 인력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전남대, 외국인유학생 무료 건강검진

전남대학교가 의료봉사단체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사진)

27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학내 G&R허브에서 의료봉사단체 '브릿지의료인회' (회장 정성남)의 지원을 받아 중국, 베트남, 우주베키스탄 등 외국인 유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내과, 정형외과 치료, 안과, 이비인후과, 한방, 산부인과 검진과 간단한 치료를 시행했다.

'브릿지의료인회'는 현직 의료진과 의대, 치대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이다. **노병하 기자**



코요태, 내달 '바람' 발매... 여름 겨냥한 신곡

국민 그룹 코요태가 오는 7월12일 가요계에 새 '바람'을 일으킨다.

27일 소속사 제이지스타에 따르면, 코요태(김종민, 신지, 뽕가·사진)는 7월12일 정오 디지털 싱글 '바람'으로 컴백한다.

'LET's KOYOTE' (렛츠 코요태) 이후 약 8개월 만에 완전체 활동을 재개한다.

이번 신곡 '바람'은 '여름 시즌 대표 그룹' 코요태를 기다렸던 대중의 기대에 완벽 부응할 곡으로, 무더위를 단숨에 날려버릴 시원하고 청량한 코요태의 보이스가 특징이다.

특히 앞서 작년 8월 서머송 'GO' (고)를 통해 국내 음원사이트 차트에 성공하며 여름 가요계를 접수했던 코요태인 만큼, 이번 '바람' 역시 이를

잇는 히트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코요태는 이번에 한층 임팩트 강한 포인트 안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기대를 높이고 있다. 남녀노소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GO' 안무로 한차례 챌린지 열풍을 일으켰던 코요태에게 이들의 '바람' 퍼포먼스는 또 어떨지 기대가 모인다.

코요태가 '바람'으로 컴백하는 가운데, 데뷔 25주년을 맞은 코요태는 각종 방송 활동을 비롯해 최근 '레시프 프로젝트' 두 번째 주자로 'Storm' (스름)을 발매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여기에 코요태는 각각각색 여름 페스티벌까지 섭렵했다. 7월 '썸머나이트'에 이어 8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미국 공연 출연을 예고하며 국내외 활동에 나선다. **이주영 기자**

한소희 韓 최초 메종 부쉐론 글로벌 앰버서더

배우 한소희(사진)가 브랜드 메종 부쉐론(Boucheron)의 한국 최초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됐다.

26일 한소희는 자신의 SNS에 화보를 공개했고 한쪽 어깨를 드러내는 의상으로 매혹적인 분위기와 화려한 이목구비가 눈에 띈다.

27일 메종 부쉐론 측은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한소희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한소희의 이미지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 그의 도전적이며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에서 부쉐론 콰트로 컬렉션에 담긴 힘과 보호의 상징을 느낄 수 있다"라고 글로벌 앰버서더 선정 이유를 전했다.

한소희는 내달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3 크리에이티브 하이주얼리 컬렉션, 까르뜨 블랑슈(Carte Blanche) 런칭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해 부쉐론의 글



로블 앰버서더로서 첫 발을 내딛는다.

한편 한소희는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크리처'로 복귀할 예정이다. '경성크리처'는 시대의 어둠이 가장 짙었던 1945년의 봄, 생존이 전부였던 두 청춘이 탐욕 위에 탄생한 괴물과 맞서는 크리처 스릴러다. **이주영 기자**

인사

광주 서구 ◇4급 승진 △서구의회 사무국장 정창욱 ◇4급 전보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4급 전임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광주 은행 ◇1급 승진 △백운동지점 임양진 △신안동지점 권택은 △지역개발금융부 임형수 ◇2급 승진 △구월동지점 서민수 △동림지점 박재홍 △동탄지점 김경식 △정보보호부 김남진 △하당지점 최광석 △학운동지점 노록곤 △해남지점 한호중 △화정지점 기우태 ◇3급 승진 △IT개발부 문상철 △감사부 국정현 △경양로지점 김라리 △디지털금융센터 문상용 △매월동지점 김솔아 △봉선동지점 김은정 △양재지점 김현정 △여신심사1부 손정의 △영업추진부 이현화 △용봉지점 김정순 △첨단2산단지점 서미선 △프로세스혁신부 한준오 △화정지점 민보경 ◇4급 승진 △IT개발부 이슬지 △광주시정지점 박다예 △금남로지점 하경미 △금호동지점 김지영 △동림지점 박노은 △디지털기획부 정형호 △리스크관리부 문솔아 △상무부들지점 문유라 △서광주지점 윤창교 △여수웅천지점 박동미 △여신기획부 유병선 △여의도지점 박운 △순남동지점 조안나 △순암동지점 윤미영 △임동지점 윤민주 △전남도청지점 류지연 △전대병원지점 송영숙 △전대병원지점 전현지 △카드사업부 김관수 △효천지점 송민영